

# 가온 다솜 2019

가온은 세상의 중심, 다솜은 사랑의  
순우리말입니다

VOL  
28

WINTER

 실로암요양원  
[www.silwelnh.or.kr](http://www.silwelnh.or.kr)

# 가는 다도 2019

## CONTENTS

- 03 삶의 노래
- 04 실로암 스케치  
건강한 삶 | 활기찬 삶 | 행복한 삶 | 함께하는 삶 | 직원동정
- 14 실로암 칼럼
- 15 더불어 사는 삶

### 실로암요양원

|     |              |     |             |      |        |      |     |
|-----|--------------|-----|-------------|------|--------|------|-----|
| 원장  | 박지훈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 법인대표 | 김선태 목사 | 이용정원 | 30명 |
| 설립일 | 2010년 7월 19일 |     | 대한예수교장로회    |      |        | 이용현원 | 28명 |
|     |              |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      |        | 직원정원 | 29명 |
|     |              |     |             |      |        | 직원현원 | 28명 |



발행일 2019년 1월 1일(통권28호) 법인대표 김선태

발행인 박지훈 편집인 장혜승 발행처 실로암요양원 주소 (1142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쇠장이길 656

TEL 031. 876. 2900 FAX 031. 876. 2990 <http://www.silwelnh.or.kr>

포지·내지 디자인 이미지 Getty Images Bank

## 삶의 노래



거주인 이승옥 어르신  
67세 | 2016년 6월 입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승옥이라고 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얘기하자면 며칠 밤을 지새울 만큼 많습니다. 삶의 노래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곳에 와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의 노래를 들어 보실래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약골(弱骨)이었습니다. 툭하면 병 치례에 감기를 달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늘 어머니는 제가 몸이 약하다는 것을 걱정하셨는데,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14세 무렵부터 눈에 백태(白苔)가 끼면서 한 쪽이 실명되더니, 15세에 망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완전히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고치려고 백방(百方)으로 손을 쓰고 안과를 찾아다녔지만, 50년 전 안과 의술로는 제 눈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실명하게 되면서 다니던 중학교도 중퇴하고, 소문에 맹학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가려고 했지만, 위낙 몸이 약하다 보니까 맹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곳 요양원에 오기까지 50년 세월을 집 안에서 두문불출(杜門不出)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집안이 부유하진 못해도 굶지는 않고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한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등어를 먹고 심한 알레르기가 생기면서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게다가 결핵까지 앓게 되면서 독한 결핵약으로 인하여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찬바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여름에 선풍기 바람조차 가까이 할 수 없는 특이체질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과 어머니가 3년 간격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집안에서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던 저는, 간호사였던 올케가 출근하면 어린 조카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조카를 제가 다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살던 수색 일대가 재개발계획이 확

정되고 시행되면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새 제 나이 65세였습니다. 언제까지나 나이가 들어가는 동생과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젠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였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하던 중에 시설을 알아보았지만 대부분 마음에 들지 않았고 동생이 인터넷을 통하여 실로 암요양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고,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서 읽어주는 것을 듣는 순간 제가 갈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온 지 3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얘길 했겠지만 투약관리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인 건강 관리와 개인에게 맞춘 음식제공까지 제겐 정말로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솔직히 이곳에 와서 그동안 말로 듣고 소화를 못 시킬까 봐 먹지 못했던 음식을 처음 먹어 보기도 했습니다. 확실하게 건강이 좋아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운동도 스스로 하게 되었고, 그렇게 자주 걸리던 감기도 앓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형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늘 외롭게 자란 저로선 모두가 친언니와 같은 분들입니다. 특히 함께 생활하는 언니는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은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어머니처럼 챙겨 주고 하면서 꼼짝 못 하게 하고 물까지 떠나 주십니다.

저는 앞으로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 체질과 생활방식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삶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한 삶



건강산책



건강검진

10월 2일(화), 포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에서 산책이 진행되었습니다. 산림의 향기와 청정한 공기를 마시며 가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월 5일(금), 거주인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x-ray 촬영, 청력검사, 키, 몸무게, 허리둘레 측정, 혈압측정, 혈액 검사, 스트레스 검사, 의사 진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양주시 장애인 등산 체험교실



이미용 서비스

10월 12일(금), 양주시장애인체육회 주최로 열린 장애인 등산체험 교실이 회암사지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민대학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대1로 짹을 이루어 안전하고 즐겁게 가을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12월 26일(수), 희망하시는 거주인들을 모시고 이미용 팩을 진행하였습니다. 천연팩을 위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팩과 함께 아로마 향기요법을 더해 거주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야외나들이**

11월 2일(금),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소요산으로 야외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울긋불긋 단풍으로 절경을 이루고 있는 산책로 산책과 함께 국화꽃 축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온천나들이**



**요리교실**

11월 16일(금),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홍삼스파 찜질방으로 온천 여행 다녀왔습니다. 찜질과 스파를 통해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피부가 관리되고 몸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 거주인들이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12월 4일(화), 올해도 거주인들과 함께 김장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한 포기씩 정성껏 양념을 바무렸고 허옇던 배추가 빨간색으로 물들어가며 어르신들의 기쁨과 기대감도 함께 물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 활기찬 삶



치료레크레이션



아이노스앙상블 공연

11월 30일(금), 모든 거주인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활동을 준비하여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열띤 응원과 환호 속에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2월 10일(월), 월 1회 요양원에 방문하여 풍성하고 다양한 연주공연과 함께 모두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국악공연



체험캠프

12월 28일(금), 양주국악협회에서 년 1회 요양원을 방문하여 거주인들과 흥겹게 어울리는 국악마당이 열렸으며 우리 옛가락에 모두함께 어깨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월 15일~16일, 청평자연휴양림으로 1박2일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요양원생활에서 벗어나 숲속 산림욕을 즐기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시간이었으며 삶의 여유를 느끼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 행복한 삶



송년행사

12월 14일(금),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실로암요양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주민, 보호자 분들을 모시고 올해의 마지막 행사의 꽃인 송년행사 "러브레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희망을 다짐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체험



거주인 피복구입

10월 18일(목), 거주인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장흥면에 위치한 송추 진흥관으로 외식을 다녀왔습니다. 맛있고 푸짐한 중화요리로 모두 만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2월 11일(화), 겨울을 맞이하여 홈플러스 의정부점에 방문하여 피복구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옷을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면서 어울리는 옷을 구입하였으며 요양원에 복귀 후 서로 한껏 옷을 입어보며 뺄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인권지킴이단회의



인권교육

12월 19일(수), 정기적인 인권점검과 시설관련자의 인권의식 개선, 인권침해 발생 시 사후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0월 24일(수), 발달장애 거주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하게 살 권리 "인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10월 29일(월), 고양 성폭력 상담소 김향숙 강사님께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에 관한 소중한 교육을 실시해 주셨습니다.

11월 15일(목), 양주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증진보건팀의 지원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고 보호 되어져야 함을 확고히 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함께하는 삶



추수감사예배

11월 11일(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사장이신 김선태 목사님의 인도로 추수감사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을 주제로 은혜로운 말씀이 있었으며, 실로암시각장애인 복지관 선생님의 특별찬양과 이영태 어르신의 하모니카 연주와 함께 의미 있는 추수감사예배가 되었습니다.



성탄예배

12월 23일(일), 성탄절을 맞이하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사장이신 김선태 목사님이 요양원에 다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외롭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로운 말씀과 선물을 준비하셔서 한 분 한 분 손 잡아가며 직접 건네주셨습니다. 항상 잊지 않고 방문해 주시는 김선태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8년 제 2차 가족간담회

12월 22일(토), 제2차 가족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거주인 보호자들과 함께 시설 운영현황, 사업 안내, 안건 토의, 이야기 나눔의 시간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족 간담회를 통하여 직원들과 보호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흰지팡이날 기념행사



양주시 장애인 체육회 어울림 한마당

10월 11일(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양주시지회 주최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신나는 타악기 공연과 가수의 흥겨운 노래 공연으로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참여한 거주인들 모두 즐거워하셨습니다.

11월 20일(화),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강사 파견으로 연계를 진행하고 있는 양주시 장애인체육회 주관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2018년 한해를 되돌아보며 이루었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더욱 발전하는 한해를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직원동정



직원야유회

10월 19일(금), 양주시에 위치한 휴리조트로 직원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레크레이션, 미니체육대회, 맛있는 식사와 함께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원들 간에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으며, 재충전을 통한 거주 인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직원송년회

12월 27일(목),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이하여 실로암 전체 직원이 모여 올해는 특별하게 직원 볼링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해 고생했던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볼링공과 함께 뿌리며 해소시키는 시간이었으며, 모든 직원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맛있는 식사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며 서로 한 해의 마무리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 윤리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11월 8일(목), 직원들이 거주인들을 케어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이 윤리성이며 거주인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1월 20일(화),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개인정보 수집이용 허용기준, 개인정보의 수집제한등 기준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거나 타성에 젖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업무들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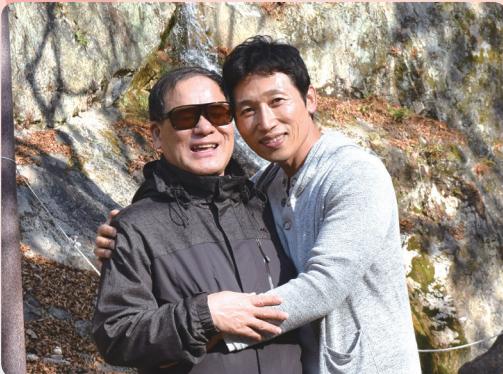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월례회의

12월 3일(월), 『아동복지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요양원 직원 모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2월 5일(수), 매월 거주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파악하고자 개최되는 월례회의 시간에는 지난 회의 때 건의된 안건에 대한 조치사항과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소통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 신입직원 소개



신입직원 **오창래**(생활재활교사)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꿈과 희망을 안고 실로암요양원에 입사한 생활재활교사 오창래입니다.

실로암요양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깊어가는 겨울의 길목에서 실로암요양원 가족들을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며 마음을 안아주고, 부지런한 밭이 되어 즐거움과 행복을 전해드리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실로암요양원 가족들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며, 저의 사랑이 삶에 깊게 녹아내려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입직원 **이현규**(생활재활교사)

황금돼지 해의 복을 가득 담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주인 케어를 담당하게 된 생활재활교사 이현규입니다.

설레는 마음보다 걱정을 안고 요양원에 출근한지 어느덧 두 달이 되어갑니다. 첫 출근 날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과 모든 가족 분들 덕분에 하루하루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로암요양원 가족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생활재활교사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웃음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주요경력

신내노인요양원 2005.12 ~ 2008.07 생활지도원 근무  
요셉의 집 2008.07 ~ 2018.05 생활재활교사 근무

### 자격현황

사회복지사 2급 / 요양보호사 1급 / 케어복지사 2급  
생활체육지도자 3급

### 주요경력

시립평화로운집 2009.08 ~ 2011.09 생활재활교사 근무  
애덕의 집 2016.07 ~ 2017.12 생활재활교사 근무

### 자격현황

사회복지사 2급

## 실로암 칼럼



실로암요양원 김무경 상담지원 팀장

한때 ‘행복전도사’로 명성을 날렸던 작가이자 방송인이었던 최윤희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만, 그녀의 유서에 보면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라고 절규합니다. 얼마나 통증에 시달렸으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이곳에 온 지 올해, 햇수로 9년이 됩니다. 그동안 정들자 이별한 분들이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 가운데 밤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던 어르신이 있습니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통증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르신, 달리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진통제 몇 알로 버텨보지만 아마도 통증에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병원에서도 그 원인을 모른답니다. 젊은 시절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다는 통명스러운 의사의 한 마디가 상처가 되었는지 아예 병원은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욕을 하면서 꿍꿍 앓는데, 소리가 듣기 싫다고 함께 생활하는 분이 한 마디 던진 말 때문에 말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목 놓아 통곡하는 그분을 불들고 기도하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당뇨합병증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절단한 다리에 통증까지 겹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멀쩡한 다리까지 통증이 시작되었다니 어쩌면 좋습니까? 본인의 말처럼 이곳에서 천국을 가겠다고 왔는데 그 천국 가는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곳 어르신들은 가슴에는 한(恨)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보듬고 살자고 했는데, 서로들 언짢은 소리가 오갈 때 보면 저도 무너져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절망감입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나는 어르신들보다는 청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도 한(恨)을 품고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조금은 어르신들을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왜들 그렇게 싸웁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참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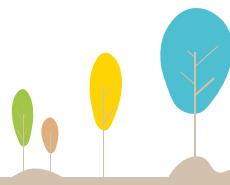
한때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유행처럼 떠든 것이 ‘자살’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자살의 상처들만 무성하지 치료되었다는 소식이 없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도 고통과 평생을 싸워도 버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상병 시인이 귀천(歸天)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고 읊었던 그 소풍 끝내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간절한 소원은 아프지 않고 천수를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자다가 하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 더불어 사는 삶(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후원요청(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기다립니다)

### 옥상방수공사

**목표금액 : 10,000,000원**

시설 거주인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시설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발생문제 해결 및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하고자 후원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10~12월 후원금 결산보고

(단위: 원)

| 세입     | 세출         |
|--------|------------|
| 비지정후원금 | 13,818,221 |
| 지정후원금  | 300,000    |
| 기타     | 8,533      |
| 합계     | 14,126,754 |
|        | 사무비        |
|        | 재산조성비      |
|        | 사업비        |
|        | 합계         |
|        | 5,155,314  |
|        | 907,260    |
|        | 4,949,415  |
|        | 11,011,989 |

### 10~12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단위: 원)

| 자원봉사자  | 후원자 |
|--|-----|
| <b>단체</b>  |     |
| (주) 구조, (주) 라이브워크, 국민은행 양주테크노점, 동우씨엠, 무지개호스피스, 사랑회, 아워홈, 양주연화푸드마켓, 임성준(대명회), 해피빈   |     |
| <b>개인</b>  |     |
| 무지개호스피스, 아이노스양상블, jj church, 반야월예술단, 양주시청소년복지센터, 난곡교회, 양주시국악협회, 최귀남  |     |
| 강승지, 강영순, 고예진, 곽정아, 권창오, 이해숙, 김경민, 김경애, 김광훈, 김광희, 김동희, 김말년, 김무경, 김미경, 김병준, 김병규, 김병숙, 김선주, 김선태, 김영선, 김영준, 김예리, 김은성, 김은철, 김은희, 김인자, 김정현, 김주리, 김철, 김태웅, 김태웅, 김현정, 김형도, 김혜우, 김호직, 나가연, 남성우, 도윤희, 박고심, 박다영, 박대삼, 박상철, 반미애, 박성일, 박윤대, 박은해, 박인수, 박정훈, 박자연, 박지훈, 박진만, 박현우, 박희범, 백기령, 변현미, 서동균, 성지혜, 송길운, 송우성, 신종선, 안해슬, 양새롬, 오승환, 오창래, 원종렬, 유자영, 유현서, 유홍진, 윤나라, 윤동혁, 윤보라, 윤찬호, 이강일, 이광열, 이금선, 이길원, 이미경, 이봉희, 이상기, 이상미, 이성규, 이순희, 이승옥, 이연수, 이영태, 이원희, 이윤규, 이윤희, 이재영, 이지선, 이진용, 이창진, 이현규, 이혜지, 이화정, 임국화, 임은상, 임준규, 정은경, 정혜승, 전예리, 전정희, 전현출, 정구연, 정은정, 정지혜, 정혜미, 조경조, 조영순, 조성범, 조영순, 조은지, 조지연, 주영, 지정규, 차대숙, 채민형, 최도영, 최문우, 최수린, 최영아, 최영훈, 최은희, 현재근, 한주희, 함은창, 함은정, 험지훈, 험현식, 허은수 |     |

### 후원 안내

☎ 031-876-2900

후원하신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일반후원 | 치료, 교육 등의 재활서비스 지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br>계좌번호: 793901-00-052667 (국민은행) 실로암요양원 |
| 결연후원 | 장애인과 1:1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전액은 결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사용              |
| 물품후원 | 금전적 후원 외 생활용품, 의류, 가구, 운동기구 등   |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silvelnh.do>

### 자원봉사 안내

☎ 031-876-2900

중·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직장인이 개인이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
|--------|-------------------------------|
| 노력봉사활동 | 생활실 청소, 안내보행, 말벗서비스, 식당보조활동 등 |
| 외부활동   | 건강산책, 야외나들이, 현장체험 등           |
| 전문봉사활동 | 이미용봉사, 운전봉사, 사진봉사 등           |
| 치료봉사활동 |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      |

##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



무거운 눈꺼풀을 잠깐 내렸다가 올렸을 뿐인데  
벌써 하얀 눈이 눈썹위에 내려앉았다.

아련한 꿈속처럼 희미한 추억에 젖어서  
차갑게 불어오는 바람을 무거운 가슴으로 힘겹게 들이 마셔본다.

창밖에 펼쳐진 메마른 나뭇가지 위에는  
새하얀 눈이 곱게 내려앉아서  
햇살을 한껏 머금고 반짝이고 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새까만 세상만 가득했던  
내 눈앞에 이렇듯 환한 세상이 펼쳐져 있다니!

실로암은 나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다주었다.  
이 겨울 또 어떤 따뜻한 이야기로 우리의 눈을 밝혀줄지 기대해 본다.